

보도시점 : 2026. 8. 6.(목) 11:00 이후(8. 7.(금) 조간) / 배포 : 2026. 8. 6.(목)

인기 관광지 '체오형' 여행, 더욱 편리해진다

- 한-체코 운수권 주 7회에서 주 10회로 확대
- 신규 항공사 취항 기반 마련으로 동유럽 이동 편의 개선 기대

- 지난 3월 헝가리, 오스트리아와의 운수권 증대에 이어 정부가 체코와도 운수권 증대에 합의*하면서 향후 한국과 동유럽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대폭 확대되고 우리 국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.

* (헝가리) 양국 간 주14회 운항 가능, (오스트리아) 양국 간 주21회 운항 가능
(체코) 양국 간 주10회 운항 가능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항공 회담*을 개최하여 양국 간 여객 운수권을 현행 주7회에서 주10회(+3회)로 증대하는 데 합의하였다.

* 수석대표 : (한국) 이소영 항공정책관, (체코) 마레크 슈크르나 민간항공국 부국장

- 현재 인천-프라하 노선에서 대한항공(주4회)과 아시아나항공(주3회)만 운항 중이었으나, 향후 신규 항공사의 진입기반이 마련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인천-프라하 노선에 대한 높은 인기로 지난 '24년에 운수권을 한 차례 증대(주4회→7회)하였으나, 최근 여행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*한 결과 여전히 상당한 수요가 확인되어 2년 만에 운수권 증대를 추진한 것이다.

* 여행업·산업계, 관광공사, 인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 등 민관협의체 운영 중('25.8~)

- 이로써 항공업계는 한국과 체코·오스트리아·헝가리 간 노선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동유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,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이소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“최근 동유럽 국가들과의 연이은 운수권 증대는 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것으로, 항공사의 실제 취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의 이동편의와 선택권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
○ “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국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차상헌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김동환 (044-201-4215)
			주무관	허백용 (044-201-4220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: TOMORROW